

# “미국, 북한과 전쟁 벌이면 경제 2009년으로 퇴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2009년 수준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국민들의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경제를 2009년 수준으로 퇴보시킬 것이며 자동차와 농업 단2개 산업부문에서 4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의 부품을 제공하는 핵심 수출국이며, 미국 농산품의 세계 6위 수입국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은 미시건, 앨라배마, 조지아주다. 자동차 공장 근로자와 유통 종사자 등을 포함해 2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현대자동차 생산시설이 있는 앨라배마주에서는 7,0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세계 6위 미국산 농산품 수입국인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일리노이 주에서 2만 명의 농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사과 오렌지 농장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소고기 산업에서는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이오와 돼지고기 산업에서는 2,200개의 일자리가, 일리노이 제조업에서는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로 꺾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은 추락하며, 임금도 급락하고, 유가는 급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TVLCD디스플레이 생산국이자 2위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관련 생산시설이 파괴되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 전자기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다른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대체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38노스는 한반도 평화가 한·미 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감당해야 할 대가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반도 전쟁은 저쪽 세계만의 일이 아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38노스는 한반도 평화가 한·미 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감당해야 할 대가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반도 전쟁은 저쪽 세계만의 일이 아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 아마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미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아마존의 임금 인상은 미국 소매업계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날 미국내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내달 1일을 기해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영국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도 시간당 9.50파운드(12.31달러)로 올리고 런던의 최저 임금은 전국 기준 보다 높은 10.50파운드(13.61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마존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텍사스주 오스틴 물류창고 종업원들의 경우 10달러, 뉴저지주 로빈슨빌 창고 근로자들은 13.50달러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아마존의 새로운 최저 임금은 현재 미국 연방 최저 임금 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아마존의 임금 인상은 미국내 25만 명이 넘는 기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 쇼핑시즌 임시 채용할 기간제 종업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아마존은 자사의 최저 임금 인상과 더불어 연방 최저 임금 인상 캠페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전격적인 최저 임금 대폭 인상 결정은 아마존을 겨냥한 점증하는 정치·사회적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증시 시가총액 기준 미국 2위의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베조스 CEO 개인은 세계 최고 부호의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종업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비난을 받아 왔다.

미국 소매업계가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최저 임금 인상은 소매업계 전반의 임금 인상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존에 앞서 소매 유통 체인점 타겟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고 월마트는 지난 1월 최저 임금을 11달러로 인상했다.

#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미 경제 역풍 될 것”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주택시장이 조음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그동안 소비자 지출과 신뢰를 지지해오던 주택시장이 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뉴스웍’에 따르면 미국비영리 민간경제연구소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 인스티튜(ECRI)의 락슈먼 아추탄 대표는 전날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 주택가격지수가 하락 전환했으며 이것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발생한 것은 2009년 지난 위기 이후였으며 2006년 이 지표는 주택시장 붕괴를 가리켰다.”고 밝혔다.

ECRI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4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아직 스탠더드푸어스(S&P)코어로직 주택가격지수는 아직 하락 반전하지 않았지만 20대 주요 도시와 1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 속도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였다.

아추탄 대표는 “지금 주택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방향성 우리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경제로 볼 때 우리는 황색등으로 둔화할 조짐을 보이지만 주택과 주택 가격 상승률은 분명히 적색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CRI는 주택 가격 하락이 단순히 주택시장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전체 경제로 과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아추탄 대표는 “이 상관관계는 자산효과를 통해 전해진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반대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내리면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있다.

아추탄 대표는 “소비자와 소비자 신뢰에 대해 순풍이 되는 대신에 역풍이 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주택 가격이 얼마나 가파르게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BRE #02036043  
**714-822-0345**  
3030 Old Ranch Pkwy. #400  
Seal Beach, CA 90740  
yeetakre@gmail.com



**Yee Tak (탁 이석)**  
Economics and Certificate in Quality Analysis at Arizona State  
건국대 경영학과

주택 / 커머셜 / 인듀스트리얼

# 부동산에 대한 모든것!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정확한 통계 분석과 네고를 통한 최고의 가격 판매와 최저가 구매

**Buena Park**  
Los Coyotes Countryclub

방 5 - 화 4 2,955 Sq  
17,000스퀘어피트가 넘는 넓은 대지  
백만불 이상의 이웃 주택들, 무한한 가능성  
빠른 판매를 위해 가격. Sunny Hill High 학군

**\$825,000**

**Hungtington Beach**

방 3 - 화 3 2,043 Sq 1995년산  
게이트 커뮤니티, 헌팅톤 비치 다운타운과  
바닷가에 근접한 집. 어린이들에게 친절한 이웃들과  
자녀들을 키우시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939,000**

**실비치**  
레저월드 55+

방 2 - 화 1 900 Sq  
다양한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을 갖춘 최고의 시니어 단지중 하나인  
실비치 레저월드 입니다.

**\$228,900**